

# 도시브랜드로서의 가람문학관 활용 방안

박영우(경기대)

## 〈목 차〉

- |                       |                 |
|-----------------------|-----------------|
| 1. 가람문학관 설립과 익산시      | 3. 가람문학관 활성화 전략 |
| 2. 국내 및 해외 문학관 활성화 사례 | 4. 맺음말          |

## 1. 가람문학관 설립과 익산시

### 1.1. 가람문학관의 의미

가람 이병기(1891~1968)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올해도 전라북도 익산시에 서는 지난 9월 6~7일에 걸쳐 원광대학교와 가람 생가 '수우재'에서 '2013 가람 문학제'를 개최하여, 한국학을 이끈 문인, 문학사가, 국어학자, 서지학자, 문화운동가로서의 가람 정신의 다양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첫째날 '가람 이병기 학술대회'에서는 가람의 제자인 최승범 교수의 기조 강연에 이어 「가람문학관의 활성화 방안」(박영우, 경기대), 「가람 이병기 서지 연구 고」(박영학, 원광대), 「가람 이병기의 한글운동과 조선어학회 사건의 의미」(박용규, 한글학회), 「가람 이병기의 삶의 향유성과 주체성」(박태건, 원광대), 「가람 시조의 전통과 인식에 나타난 저항 담론」(우은진, 부산대) 등 가람의 학문적, 지사적, 문학적 성과와 의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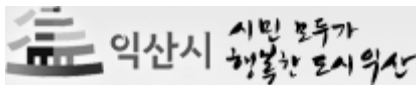
특히 이날 학술대회는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가람문화관 건립이 확정된 이후 처음 열렸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 관심과 의미가 컸다. 가람문화관 건립에 참여하는 담당 공무원과 기획사, 건축 담당자, 유족 대표, 문인과 시민 등이 모두 참여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가람문화관 건립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 세미나라면 보다 치밀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익산시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인 가람문화관의 건립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와 성과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문화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한 문화관의 건립에 머물지 말고, ‘가람 이병기’라는 문화적 유산을 익산시의 도시브랜드와 연계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계획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을 국내외 성공적인 문화관 운영 사례를 통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 1.2. 익산시 환경 분석

익산시는 주변 도시들의 발달(논산, 전주, 군산, 부여, 부안, 진안) 등 특색 있는 주변 도시 들과 인접하여 있어 접근성 및 협력 가능성이 풍부하다. 또한 KTX의 주요 경유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익산 여수선 개통으로 인하여 전라도 KTX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향후 계획 중인 서울의 수서선 KTX 개통 시 서울의 강남, 수도권의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 지리적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림 1> 익산시 로고와 로고 설명에서 보듯 역사와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포지셔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익산시 어메이징로고<sup>1)</sup>

1) 익산시청 홈페이지, <http://iksan.gojb.net>, 2013.

익산시의 로고는 백제, 마한의 위대한 역사 문화도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이자 아시아 식품 수도로 거듭날 놀라운 도시 익산을 의미한다. 익산은 백제 무왕의 천도지인 왕궁리 유적과 국보 제289호 왕궁리 5층 석탑이 있으며, 또한 국보 제11호 미륵사지를 비롯하여 국보급 유물 505점이 출토된 역사 문화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도시이며, 2008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지로 확정되어 향후 한국형 푸드벨리이자 세계 최대의 식품산업 전진기지로 거듭날 도시이며, 브랜드슬로건 디자인에 국보 제11호 미륵사지를 사용함으로써 웅장함과 위대함을 돋보이고자 표현했다.<sup>2)</sup>고 역사와 문화도시로서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정학적으로도 전라북도 서북단에 위치하며 노령산맥의 지맥인 천호산과 미륵산이 동부에 아름다운 산세를 이루고 있으며, 서북부에 함라산 줄기가 이어져 남서로 향하는 구릉과 대,소하천이 비옥한 평원을 이룬다. 북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남 논산시와 부여군에 서로는 옥구평야에 남으로는 만경강을 경계로 김제평야에 접하고 있다.

호남선이 남북으로 중앙을 관통하고 익산역을 기점으로 하는 전라선과 군산선(장항선)이 동서로 통과하며. 호남고속도로는 동부를 지나 금마 진입로에 있고, 1번 국도와 23번 국도 및 10여개의 국도지방도 등 전국 각지를 이을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전라선과 호남선, 군산선(장항선)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유동 인구가 유난히 많고 익산 공단 내에 있는 국내 최대 귀금속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sup>3)</sup>

위에 인용된 익산시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역사, 문화, 지리적 현황에서 보듯 익산시는 문화와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도시 브랜드화를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인프라 요인을 갖추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람문화관의 건립은 단순한 문화관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익산을 상징하는 문화적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

2) 익산시청 홈페이지, <http://iksan.gojb.net>, 2013.

3) 익산시청 홈페이지, <http://iksan.gojb.net>, 2013.

## 2. 국내 및 해외 문학관 활성화 사례

현재까지 설립된 우리나라 문학관은 2013년 현재 한국문학관협회에 등록된 곳만 60여 곳에 이르고 있다. 문학관 이외에도 문학공원 등을 합한다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많은 문학관들이 얼마나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느냐에 있다. 수십억 원의 건립 예산과 해마다 운영, 관리비 등이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면 그 효용 가치를 좀 더 치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시인이나 작가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을 찾고, 국민과의 문화적 향유를 통해 얻는 교육적, 정서적 순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지역문화의 재현을 통한 로컬리티를 강조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문학관 설립에 앞서 각계 전문가들의 치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한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장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럼으로써 시인이나 작가, 운영에 관한 연구자, 문학관 설립 기획자, 관련 공무원, 건축가 및 시민들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갑자기 예산이 통과되면 우선 예산 소요 기간 내에 조경이나 건물부터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공사를 하다보니, 정작 중요한 전시물의 확보나 콘텐츠 제작, 운영비가 없어 문을 닫게 되는 폐해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시인이나 작가의 개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건축, 그리고 완공 뒤에도 관람객을 유도할 수 있는 운영 방안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국내외 문학관 운영의 몇 가지 성공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보자 한다.

### 2.1. 국내 문학관 활성화 사례 분석

국내외를 막론하고 문학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재정의 확보다.

인동시에 소재한 이육사문학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적정 수준에서 재정과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학관에 비해 운영이 순조롭다. 현재 안동시청에서는 이육사문학관에 일반 운영 경비와 인건비로 연간 약 1

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문학관의 프로그램 진행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이육사문학관은 다행스럽게 시 당국에서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하여 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육사문학관은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는 김유정문학촌과 비교해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육사문학관에는 안동시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4명의 직원이 있어 문학관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뿐 아니라 시설 안내와 관람객 안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들과 연계하여 안동 지역에 산재해 있는 도산서원, 하회마을 등 문화유적지와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문화 행사를 기획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4)</sup>

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문학관이 ‘문학성’과 ‘지역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목포문학관의 사례는 문학관이 어떻게 ‘지역성’을 담보하면서, 이를 전국적인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를 보여준다. 목포문학관은 단순히 한 명의 유명작가를 기리거나 빛내기 위한 문학관이 아니라, 지역문학 정신을 널리 알리는데 건립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에 연구 인력을 지역 소재 대학에서 채용한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목포문학관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문학관 문학 작가 파견 사업, 목포문학관 소장품 기획전, 목포문학 관련 자료 기증 운동, 문학인 사랑방 추진 등 목포가 가진 문학적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이 개최하고 있다.<sup>5)</sup>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최명희문학관의 경우도 문학성과 지역성을 잘 살려 운영하고 있는 모범적 사례로 들 수 있다.

최명희문학관의 강점은 연구 인력이 문학 전공자라는 것이다. 인근의 지역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였거나, ‘혼불기념사업회’ 소속으로 문학 특히 최명희 문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지녔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문학성을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시 사랑 모임’, ‘장성수 관장과 행복한 소설 읽기’, ‘혼불 문화해설사’, ‘혼불 읽기 모임’, 등 문학동아리에 의해 운영되는

4) 정정훈, 『이육사 문학관 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26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200면.

5) 정정훈, 『지역문학관 활성화 방안:문학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24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73면.

프로그램이다. 또한 ‘전주 發, 엮서 한 장:엮서 쓰기’, 수공의 힘을 새기는 날 : 서체 따라 쓰기“ 등은 전주 국제영화제 등과 연계되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sup>6)</sup>

다음으로 박경리문학관의 예를 들 수 있다. 박경리문학관의 특징은 원주, 하동, 통영 세 곳에 건립된 것이다. 이곳은 각각, ‘살았던 곳’, ‘작품 무대’, ‘태어난 곳’과 연관되어 있다. 박경리 문학관은 문학관이라는 단일한 건물보다는 이와 연계된 공간(‘토지문화원’, ‘최참판댁’, ‘박경리공원’)으로 그 내연과 외연을 넓히고 있다. 원주는 박경리가 『토지』를 집필한 현장으로서의 장소적 성격을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박경리 문학의 집’이 건립되면서 박경리문학의 전시가 시공간적으로 확장되었다. 2층에서 5층으로 이어지는 전시 공간은 ‘박경리와 만나다’(2층), ‘토지에 들어서다’(3층), ‘살펴보다’(4층), ‘회상하다’(5층) 등의 주제 공간이 구성되면서 전체적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기획하고 있다. 또한 『토지』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하동 악양면에 작품의 무대인 최참판댁을 확인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에 하동시는 ‘최참판댁’을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 했다. 최근에는 평사리 일대를 문학, 영상, 역사, 민속이 만나는 테마체험관광지로 조성하였다.<sup>7)</sup>

황순원의 ‘소나기 마을’은 소설 『소나기』의 중요한 장면이나 캐릭터를 활용한 정체성 있는 장소감을 잘 살린 예라 할 수 있다. 방문객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작품에 대한 사전 정보와 작품 속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 작품 속의 환상적 공간을 현실 공간 속에 효과적으로 재현해내고 있다.

공간 구성 면에서도 황순원 문학관을 중심으로 묘역, 수숫단 오솔길, 소나기 광장, 송아지들관, 고향의 숲, 해와 달의 숲, 사랑의 무대, 고백의 길, 들꽃마을, 학의 숲, 야외 전시장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스토리가 있는 테마파크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한 소나기마을과 가까운 주변 양평군 서종면, 용문면에 산재해있는 조선 말기 성리학자 이항로선생 생가, 용문사, 물과 꽃들이 함께 하고 있는 ‘세미원’, ‘숲을 보는 아이들’, 애벌레생태학교, 두물머리 등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6) 정정훈, 앞의 논문, 75면.

7)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박경리문학관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36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35~36면.

된 관광코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더하고 있다.<sup>8)</sup>

김유정문학촌의 경우에도 ‘소설의 고향을 찾아가는 문학 기행’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실례마을에 생가, 기념관, 금병의숙을 중심으로 작품의 주요 무대를 돌아보면서 자연스럽게 금병산 산책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역 이름까지 김유정역으로 개명하여 지명도를 높이는 효과와 함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sup>9)</sup>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람문학관 건립 사업도 위에서 열거한 장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문학관 건립을 위한 전체 예산의 효과적인 배분을 들 수 있다.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건축 및 조경에 과도하게 배분하고 집행함으로써, 전시 공간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건축비와 더불어 적절한 예산을 가람문학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책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육사문학관이나 김유정문학관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관 주도의 운영이 아닌 전문가를 통한 민간 위탁 운영으로 자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산 지원은 하되 기획 및 운영은 전문 인력을 통한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익산시민의 문화와 휴식 공간이자 관광 및 지역 콘텐츠와 연계될 수 있는 도시 기반 시설이나 문화 공간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원주나 통영하면 ‘박경리’, 춘천하면 ‘김유정’, 평창하면 ‘이효석’이 생각나는 것처럼, 익산하면 ‘가람 이병기’가 떠오를 수 있도록 문화적 랜드마크로서의 도시 브랜드 사업과 연계된 연구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2. 해외 문화 공간 활성화 사례 분석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4.26~1616.4.23)의 고향인 영국의

8) 박영우, 「가람 이병기 문화공간의 활성화 방안」, 『한국문예창작』2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1. 94면.

9) 김유정문학촌홈페이지 <http://www.kimyoujeong.org/>

스트라트포트 어펜 에이븐(Stratford-upon-Avon)은 런던에서 세 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야하는 먼 곳이다. 시인이 살아있던 당시 인구 5만의 작은 시골 마을은 지금 해마다 수만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어 있다. 시인의 생가, 만년에 살던 집터, 교회 묘지 등은 영국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리는 곳이다. 시인의 생일날인 4월 23일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외교 문화 사절이 참석하여 시인의 생가에서 출발하여 무덤까지 꽃을 바친다. 실로 스트라트포트는 셰익스피어 때문에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셰익스피어 연극이 연중무휴로 공연되는 “왕립 셰익스피어 극장”이 있고, 전 세계 셰익스피어 연구자들이 몰려드는 “셰익스피어센터”가 있다. 이와 같은 학문적 기반 위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도시 곳곳에 셰익스피어는 문화상품으로 개발되어 있다. 학교와 서점은 물론 음식점, 술집, 그리고 BB(Bed and Breakfast)라고 불리는 저렴한 숙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품들이 셰익스피어와의 관련성을 강조하고자 한다.<sup>10)</sup>

다음은 일본의 경우로 『빙점(氷點)』의 작가 미우라야야코(三浦綾子, 1922~1999) 문학관을 중심으로 도시브랜드화와 연계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고 하겠다.

아사히카와(旭川)는 홋카이도에서 삿포로에 이은 제2의 도시이다. 아사히카와에는 국제공항도 있고, 북쪽의 왓카나이와 동쪽의 아바시리, 그리고 라벤더와 전원 풍경이 아름다운 후라노, 비에이 등으로 가는 철도 노선의 교차점에 있다. 삿포로와도 그리 멀지 않아 홋카이도 동북부 여행 시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또한 이곳은 미우라야야코의 기념관을 비롯해 북해도문학관 등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에 위치한 북해도 도립문학관은 문학관이기에 앞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아늑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단순히 문학관 기능만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10) 신겸수, 『김삿갓 문학/ 문화의 세계화에 대하여』, 『시선 난고 김삿갓 문학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김삿갓유적보존회, 2011, 1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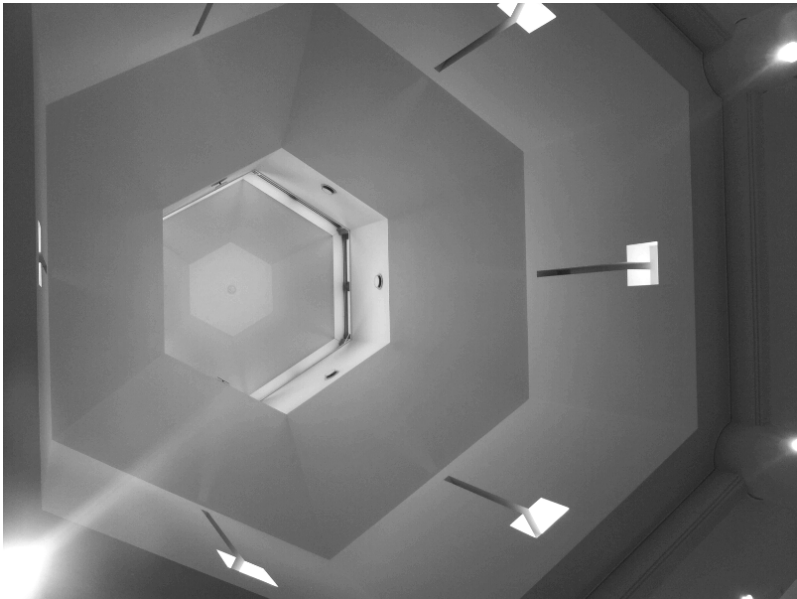
〈그림 1〉 일본 북해도 도립문학관 로비

일본을 대표하는 여류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1922년 아사히카와시에서 태어나 평생을 아사히카와에서 보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녀가 죽은 후 독자들이 기금을 모아 지은 곳이 미우라 아야코 기념관이다. 그리고 기념관이 있는 장소는 그녀의 데뷔작 『빙점(氷點)』(1964년작)의 무대가 되는 곳이다. 기념관 뒤쪽으로 펼쳐진 울창한 숲은 1898년 서양에서 수입한 침엽수림이 이곳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조성되었는데, 바로 이곳이 ‘빙점’의 주인공 요코와 그녀의 의붓오빠인 도우루가 뛰어놀던 추억의 장소이자 요코가 마음을 달래던 장소이다. 그리고 숲을 지나면 강이 나오는데 이 강이 나쓰에의 딸 루리코가 유괴돼 살해당하는 곳이자 양녀인 요코가 자살을 시도한 비에이강이다.

이처럼 작품의 극적인 배경이 되는 장소에 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작품 속 환상적 분위기에 젖어 허구적 실제 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문학관을 둘러싸고 있는 삼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걷다 보면, 관람객이 실제 소설의 인물이 된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또한 문학관 내부의 모습도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소설 제목 ‘빙점(氷點)’의 이미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작품과의 연관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이 매일 문학관에 출근하여 자리를 지키며 관람객들을 맞이했다고 한다.

이처럼 문학관의 활성화는 단순한 건축이나 전시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작가나 작품의 충분한 해석을 통한 독자, 관람객들과의 공감대를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 연구가 선행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일본 북해도를 찾는 관람객들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일본 미우라아야코문학관 내부 천정

미우라아야코 기념관은 아사히카와에 말고도 또 하나가 있다. 또 하나는 시오카리 고개에 있는데, 이 기념관은 아야코가 무명 시절 밤에는 글을 쓰고 낮에는 생계를 위해 운영하던 잡화점을 재현해 놓은 곳이다. 이곳은 1917년 삿포로행 열차가 이 고개를 달리다가 고장을 일으켜 열차가 역주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안 한 청년이 열차 밑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승객들은 모두 무사할 수 있었다. 이 청년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약혼 예물을 교환하기 위해 삿포로에 가던 중이었다 한다. 기독교 신자였던 야야코는 이 청년의 고귀한 희생에 모티프를 얻어 『시오카리토게』라는 소설을 쓰게 된 것이다.

이처럼 소설 속 주요 모티프가 된 기차길 언덕 위에 재현된 잡화점 건물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다. 이곳은 잡화점과 더불어 50평 정도 규모의 삼나무로 지어진 다다미방이 마련되어 있는데 주로 소설 낭독회 회원들의 모임 장소나 또는 혼자서 조용히 독서를 하거나 명상을 하는 힐링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문학관 운영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4년 문학관 개관 15주년 사업의 사업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우라야야코 팬들의 모금으로 15년 전 건립된 문학관은 그동안 미우라야야코 문학의 성지로서 지금까지 45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아왔다. 특히 동일본 후쿠시마 지진 재난 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테마로 한 미우라의 작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문학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 결과 미우라의 독자수가 증가하고 절판 상태에 있던 7편의 작품이 다시 출판되어 발간 부수가 전년의 3배를 능가하는 24만 권이나 되었다. 또한 작년에는 일본 출판전시회에서 그의 소설 『빙점(氷點)』이 필독 명작 1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지금 이 시점에 그의 소설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를 “전후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대지진으로 살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자살, 폭력, 학대, 약물 중독, 마음의 어둠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 이 미우라의 작품을 많이 찾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다.<sup>11)</sup>

위의 사업 취지에서 보는 것처럼 미우라야야코의 독자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단순히 작품의 우수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진 등의 자연 재해, 자살, 폭력, 우울 등 현대인들이 받는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인생 독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작품의 의미가 일본인들

11) 미우라야야코문학관, 『미우라야야코문학관관보』 제30호, 2013.

의 가슴속에 현재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해마다 열리는 주요 사업 내용들도 문학관에 국한되지 않고 전도시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도시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노인층에게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빙점(氷點)」3대 특별전

- 1) 소설『빙점(氷點)』에 관련된 문학관 기획으로 특별전을 3회 개최하여 「빙점(氷點)」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시하여 젊은 세대들이 작품을 읽을 수 있는 기회 제공.
- 2) 「빙점(氷點)」과 관련된 상품 개발, 작품 창작 5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한 번 영화, 드라마 제작을 위한 기획과 노력.  
「빙점(氷點)」의 무대 아사히카와(旭川)에 ‘빙점(氷點) 다리’, ‘빙점(氷點) 거리’를 만들어 마을 자체가 소설의 배경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창작 50주년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미우라야야코의 문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상품 제작과 이벤트 개최 준비.
- 3) 전 작품 전자 서적으로 출간

전 생애 82 편의 작품을 전자서적으로 제작하여 판매. 그동안 절판되었던 40편의 작품도 일출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노년 세대를 위해 구매 방법과 전자서적 사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문학관에서 개최한 2012년도 연간 주요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천천히 읽는 「길이 있었다」낭독회
- 이동 순회전 <미우라 문학과 북해도>
- 문학강좌 1 <광세씨가 한국에 전한 소원>
- 그린하모니 콘서트 <이른 봄바람에 실려> 혼성합창단
- 초크 아트전 <오일과 파스텔의 세계>
- 미라클 낭독회, <피아노 선율과 함께 하는 낭독회> 샷바로 낭독음악회
- <미우라야야코를 쓰는> 서예전, 교육대학 서예연구실
- 문학강좌 2 <아사히카와(旭川) 어린이에게 전하고 싶은 아야코씨의

- 마음>, 부귀당(富貴堂) 점주
- <문학관장과 즐기는 다과회>, 빙점의 무대가 된 기스타치로 다방
- ‘빙점 거리’ 걸으며 사진 찍기
- 봄꽃이 만발한 대지 순례
- 음악 거장이 읽는 작품 낭독회
- 사미센 연주회
- 아사히카와(旭川) 옛이야기 <전설의 거북이와 돼지고기뎨밥과 북해도>
- 주방에서 본 아사히카와(旭川), 북해도호텔
- 기타리스트 명곡콘서트
- <다과회> 창시자와 아내들

연간 특별회원 2000엔

미우라야야코 축제 1주일권 1000엔

행사별 800엔, 1000엔, 무료 등 다양한 회비<sup>12)</sup>

앞에서 보듯 미우라문학관에서는 연간 80회가 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특히 문인이나 독자 중심의 행사가 아니라, 음악, 미술, 음식 등과 연계된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전문가와 시민, 독자가 함께 하는 축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련의 행사들을 유료화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작가, 작품과 관련된 상품 개발, 영화, 드라마 제작, 주요 작품 무대인 아사히카와(旭川)시내를 중심으로 한 도시 계획 및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관련 행사를 연례화함으로써, 도시이미지와 도시브랜드 구축에 연계시키고 있는 점은, 앞으로 가람문학관 건립에 앞서 충분히 검토되어야할 요인들이라 생각한다.

12) 미우라야야코문학관, 『미우라야야코문학관관보』 제30호, 2013.

### 3. 가람문학관 활성화 전략

#### 3.1. 복합 활용 계획 수립

앞 장에서 살펴본 국내의 문학관의 활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가람문학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으로서의 차원을 넘어선 시민이나 관람객들에게 문학과 문화, 교육 그리고 휴식과 정서적 힐링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문학에서 장소의 형성은 일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와 안정감은 유아기 시절부터 주위의 무차별적 공간을 장소화하면서 이루어 나간다. 그리고 인간은 장소감의 연장으로 주위를 넘어선 곳에 있는 공간을 질서화 또는 기호화 한다. 가람의 문학을 장소 개념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소가 성립하기 위해 주위 세계에 속하는 사물들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sup>13)</sup>

그런 점에서 문학관의 공간 구성은 가람의 시조들에 나타난 역사적, 인간적, 자연적, 미적 특성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관과 생가 ‘수우재’를 어떤 형식으로 연결시킬 것인 지도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생가와 문학관 그리고 생가 주변에 백련 연못을 조성하여 문학 생태 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가람문선』에 보면 백련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용화산(龍華山) 구름 자고 천호(天湖)에 달 흐르다  
백련화(白蓮花) 곁에 두고 못가로 거니노니  
이따금 서늘한 바람 향을 불어 오도다

—이병기 『고토(故土)』부분

내가 고적한 용화산 기슭 진사동에서 성장하여 나이 십여(十餘)에 가장 반기던 건 그 주위 산야의 대자연한 풍경이었다. 이것이 가장 인상이 깊고 기억이 새롭다. 그 내력일지는 모르나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중략) 중국에서 캐다 심었다는

13) 이경애, 『가람 이병기 문학 연구-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는 문, 2012. 56~58면.

백련 뿌리를 구하여 옮겨 심었다. 그 백련이 성히 번식하여 수년 만에 한 못으로 가득 차고 샷샷만한 잎과 백학만한 꽃이 여름 내지 가을까지 한 요대(瑤臺)를 이루었다.<sup>14)</sup>

-이병기 수필 『백련(白蓮)』부분

앞에서 보듯 생가 앞 논 반 마지기에다가 백련을 심은 이야기가 나온다. 가람선생은 달밤이면 백련꽃 핀 연못가를 걸으며 감흥에 젖곤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생가 주변 논을 활용하여 백련 연못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생가와 문학관과 공원이 어우러지는 문학 생태 공원으로로서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제는 문화소비자들의 욕구가 단순한 볼거리나 먹거리에 주목하는 방식은 쇠퇴하고 생태나 문화에 대한 능동적 체험과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방식이 주목을 받는다.<sup>15)</sup> 이런 측면에서 관람객들의 문화 욕구도 충족하면서 주민들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가에서 1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폐교된 남초등학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남초등학교는 가람선생 장례식 때 문상객을 받던 장소이기도 해서 가람선생 동상이 세워져있기도 하다. 이곳은 한국의 전통교육, 시조 교육, 문화 원형 체험 장소로 활용하고, 숙박을 원하는 관람객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전통음식과 가람선생이 즐겨 마셨다던 호산춘주를 즐길 수 있는 주점 운영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생가와 문학관과 백련생태공원과 폐교된 남초등학교를 잇는 둘레길 조성 등 가람시조문학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보다 친화적이고 경쟁력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작품의 주요 모티프인 ‘난초’나 ‘매화’의 이미지들을 작품의 시적 의미와 연관시켜 시각적, 청각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관이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테마파크 형식의 문화공간으로 재구

14)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187면.

15) 윤재웅, 『에코뮤지엄으로서의 미당시문학관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연구』 36호, 2009, 441면.

성될 때 정체성 있는 의식적 장소감<sup>16)</sup> 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공간스토리텔링은 장소감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해당 장소가 보유한 독특하고 다양한 경험을 테마파크 내에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개별 방문객의 장소에 대한 사전 정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의 정체성을 특징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장소 본연의 개성적 의미 자질을 효과적으로 유포할 수 있는 건축, 동선, 경관을 기획해야 한다. 이때 장소에 대한 다른 지식을 소유한 다양한 방문객으로부터 진정한 ‘장소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는 장소의 정체성을 지적인 성찰이 아니라 감각적 놀이 혹은 오락적 이야기로 체험하는 방식을 의도하는 것이다.<sup>17)</sup>

앞의 설명처럼 가람문화관도 테마파크나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까지도 수행해낼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조와 한국적 전통의 공간”을 통해 캐릭터, 조형물로 만나는 조선시대 시조시인 (윤선도, 황진이, 이매창, 안민영 등)으로 꾸미거나, ‘가람 이병기와의 만남의 공간’에서는 주요 작품을 표구 전시로 보여주거나, ‘풍류로 만나는 가람’의 공간에서는 매화, 난초, 술, 제자와 관련된 작품과 에피소드를 스토리화하고 책이나 CD로 상품화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매화, 난초 공원을 조성하고 ‘시조의 체험 공간’, ‘시조 창작 교실’, ‘시조창 교실’, ‘풍류 주막’ 등을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18)</sup> 온라인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한 문화관 소개와 더불어 아래의 표와 같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함으로써, 문화관 관람 후 피드백을 통한 관람객들의 호응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16) Relph,Edward,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34면.

17) 안승범·최혜실,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테마파크 기획 연구』, 『인문콘텐츠』 17호, 2010, 286면.

18) 『가람 이병기 문화공간의 활성화 방안』, 『한국문예창작』2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1. 96면.

〈표2〉 가람문학관 어플리케이션 설계 원리<sup>19)</sup>

원리	사용자 활동	지원 기능
수준 및 기호에 따른 대표 시조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준별 시조 선택하고 감상하기</li> <li>2. 주제와 제재별 시조 선택하고 감상하기</li> <li>3. 스토리에 따른 시조 감상하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 시조 감상 자료 지원</li> <li>2. 인상적인 시조 저장하기</li> <li>3. 좋은 시조 친구에게 보내기</li> </ol>
시조의 창작 과정을 통한 경험의 공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창작 배경 지도 찾기</li> <li>2. 작품 속 관련 인물 검색하기</li> <li>3. 작품 속 즐겨찾던 곳 검색하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도 검색</li> <li>2. 시적화자 및 관련 인물 검색</li> <li>3. 지역 명소, 맛집 소개 등</li> </ol>
작품 속 시대적 배경과 삶의 모습 이해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대와 역사 이해하기</li> <li>2. 가람의 인생관, 문학관 엿보기</li> <li>3. 지역과 관련된 문우(文友) 및 친구, 제자 알아보기</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명과 인명 검색</li> <li>2. 시인과 관련된 저서의 서평, 평론 제공</li> </ol>
나의 애송시조 낭송하기	문학관 관람 후 애송 시조 한편 낭송하여 스마트폰에 저장하기	낭송된 애송시조 친구나 가족에게 보내기
가람과 상호작용을 통한 단시조 쓰기	단시조 쓰고 저장하기	우수작 경품 이벤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건립될 가람문학관은 가람정신과 문학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재현의 공간이자 시민들이나 관람객들이 문화 향유와 치유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3.2. 도시브랜드로서의 가치 창조

도시브랜드란 도시가 가지는 다양한 환경, 기능, 시설, 서비스 등에 의해 다른 도시와 구별되는 상태로써 일반적으로 외부의 인지도와 도시 인상을 의미

19) 박영우, 『현대시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한국문예창작』 27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1.3.22년.

한다. 또한 내적으로 지역 발전의 동기 부여 및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외적으로는 다른 도시들과의 식별 및 차별화를 통해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상징적 체계를 의미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고 자긍심을 느낄 때 비로소 도시브랜드에 대한 초석이 마련되는 것이며 이를 외부인이 그 가치를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브랜드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sup>20)</sup>

현재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광 인프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백제문화권의 문화제. 둘째, 보석박람회와 관련한 보석 관광. 셋째, 전통 체험 관광이 그것들이다. 가람 문학관이 도시브랜드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세 가지 인프라 활용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익산시가 보유 관광 자원들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해당 자원들에 대한 인큐베이팅이 가능할 때 가람문학관은 단순히 문학관이 아닌 익산시 관광산업의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가람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익산시의 도시브랜드 확립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 3.2.1.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한 백제문화권 문화제와의 연계

익산시는 백제문화권의 유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관광 루트들도 적극적으로 개발된 상태이다. 가람 문학관이 익산시 도시브랜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발된 관광 루트들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현재 익산시가 개발하고 있는 관광루트들이 유물 중심(현장 중심)이라면, 향후 가람 문학관과 연계되어 인큐베이팅 될 관광 루트는 스토리텔링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된 스토리텔링 중심의 관광 루트들은 관광객들의 정서와 감성을 자극하는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스토리텔링 중심의 관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람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지사적 면모와, 국문학자로서의 업적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서만이 가람선생이 우리 민족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리의 얼과 문화를 지켜낸 위인으로서 재조명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20) 임성택,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도시 브랜드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호, 2008, 129면.

한 가람 선생이 특정 시대의 시조시인이 아닌 우리 민족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재발견 되고,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물로서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3>은 가람선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내용이다.

<표3> 가람선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개발 내용

사업	내용	효과
가람 선생 인물 개발	가람선생의 인물 개발을 통하여 익산의 대표적인 인물상을 제시	익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상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통합할 수 있는 중심 내용 제시
가람 선생을 통한 스토리텔링	가람 선생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백제문화권 유물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	가람 선생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도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에 대한 감성적, 문화적 의미 부여
가람 문화과의 접목	가람문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백제문화권 유물들에 대한 새로운 스토리텔링 및 관광루트 개발	가람문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미지들과 의미의 발견을 통한 새로운 스토리텔링 상품의 발견 가능
가람 선생 이미지의 대표화	가람선생의 이미지를 익산시 전역에서 활용하여 가람선생의 지사적 이미지와 선구자적 이미지를 도시브랜드 전략에 접목	가람선생의 대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익산시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음

### 3.2.2. 보석박람회 및 보석 관광과의 연계

익산시의 핵심 관광 자원 중 두 번째는 바로 ‘보석 웰리스’를 기반으로 한 보석 사업이다. 보석 박람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보석은 익산시를 대표하는 주력 관광 상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다. 가람문화관은 이러한 보석 관광 산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대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람 선생의 시조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미지들(난초, 매화, 백련, 함박꽃 등)을 모티프로 한 보석을 개발, 전시함으로써 가람문화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시조의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 개발 내용이다.

〈표4〉 시조의 이미지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내용

사업	내용	효과
시조의 주요 이미지에 대한 보석 상품 개발	시조에 나타나는 주요 의미들을 모티프로 한 보석 세공 및 개발	가람 문화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관광 협력 가능
개발 상품의 상설 전시 및 시조도시 조성에 사용	개발된 보석들을 상설 전시 및 시조도시 조성을 위한 조형물로 사용	보석 상품의 차별화와 더불어 가람 이병기를 통한 도시브랜드 확립

### 3.2.3. 전통 체험 관광 인프라를 통한 ‘시조도시’ 조성

현재 익산시의 ‘가람문학계 추진위원회’에서는 ‘시조도시’ 선포 및 ‘시조공원’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관광, 문화 인프라와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아래 <표5>와 같은 콘텐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표5〉 시조와 관련된 도시 관광 연계 콘텐츠 사업 내용

사업	내용	효과
시조도시 인프라 구성을 위한 시조 관광권 조성	시조도시 인프라 구성을 위한 시조 관광권 제정과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개발 계획 수립	시민들의 의견 및 비전의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 익산시와의 협력적 발전관계 확립
시조 마을 특화사업	시조마을 제정 및 교육을 통하여 익산시의 새로운 관광테마를 구축	시조마을을 특화를 통한 문화·관광의 발전
‘가람로’ 추진 및 올레길 정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올레길을 가람로로 제정하여 시조 올레길로 변화	특색이 부족했던 올레길에 특색을 부여함과 동시에 시조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림
난초 재배 및 난초 공원 추진	가람 시조의 주요 소재인 난초의 재배 및 공원 조성을 통한 시조의 주요 이미지를 공간화 . .	부가 산업 창출 및 도시 이미지 제고, 가람선생 시조의 핵심 소재 전달 가능
체험학습(시조 및 사군자)	시조마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시조 문화의 저변 확대와 관심 유도	시조마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통한 핵심 콘텐츠로 활용 가능

현재 익산시에서는 가람 선생의 생가인 ‘수우재’ 근처에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광 루트는 올레길의 경우 ‘장터 가는길’, 농촌체험 마을의 경우 ‘성당포구마을’, ‘웅포권역활성화 센터’, ‘두동편백마을’을 함께 관광 가능한 관광지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시에서 마련한 이들 체험 콘텐츠들은 다른 지자체들과의 차별화된 내용을 거의 찾을 수 없다. 올레길의 경우 테마가 없는 형태이며, 체험 콘텐츠의 경우에도 도자기 빚기와 같은 체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여느 지역과 다름없는 관광 상품인 것이다. 그렇기에 가람문학관과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조도시의 선포를 통해 이미지를 창출해 내고 그 이미지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전통문화체험과 연계하여서는 사군자 그리기, 시조 쓰기, 시조창 배우기 등의 체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단순한 체험 행사를 넘어 우리의 전통시인 시조의 저변을 넓힌다는 의미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익산시가 ‘시조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람 문학관 인근의 마을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시조마을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조벽화 등을 통한 가람 문학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도시정비를 함으로써 시조마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21)</sup>

익산시에서 개발한 둘레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장 보러가는 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으나 이는 아무런 특색도 없는 길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용화산에 이르는 루트를 가람문학과 관련된 명칭 및 경관으로 개발한다면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비, 혹은 시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볼 수 있는 길로 조성함으로써, 가람문학관이 주변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문학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21) 김유정 문학촌 자체는 생가, 기념관, 디딜방앗간, 외양간, 휴게정, 연못, 우물, 동상 등의 시설로 이루어 졌지만, 넓게는 생가나 기념전시관, 금병의숙, 금병산 등산로, 김유정 작품의 배경이 되는 마을 전체를 일컫는다. 김유정 문학촌이 있는 춘천시 신동면은 철도 역사상 최초로 역명에 사람 이름을 사용한 김유정 역과 ‘유정식당’, ‘봄-막걸리’ 등 김유정 소설과 관련있는 상점 간판을 볼 수 있고, 실레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금병산은 김유정의 작품명으로 등산로가 만들어져 등산객들이 산행을 하면서 작가의 작품과 친근하게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문학관 활성화정책 연구』, 김진숙,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2, 33면)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난초는 가람 선생의 시조에 나타나는 주요한 모티프이다. 이러한 모티프를 차용해 난초 재배 단지 및 공원을 조성한다면 부가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가람 선생의 문학적 모티프를 도시 이미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이상 도시 브랜드로서의 가람문학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예로 든 영국의 스트라트포트 어폰 에이븐(Stratford-upon-Avon)이나 일본의 아사히카와(旭川)시의 경우처럼 역사와 문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익산시도 가람문학관 건립을 계기로 ‘가람 이병기’를 도시브랜드와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기획과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건물 등 외관 투자보다는 콘텐츠 기획이나 개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전문 연구원을 통한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기업, 관광산업과 연계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미우라야야코문학관은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작가 후원회, 동호인, 기업, 대학, 종교단체의 후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시 관광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상설화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과 연계된 관광 패키지 상품이나 지역 특산품과 연계시킨 기념품 등의 개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브랜드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가람 이병기’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람에 대한 학술적 문학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알기로는 아직 가람선생의 전집조차도 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책 간행뿐만 아니라 CD, 전자책 보급 등을 통해 문학적 향유층을 넓히고, 독자들이나 관람객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조건 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때 시민들도 가람문학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화려한 외관보다는 내실 있는 독자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익산시나 사업 주체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간 설계 및 콘텐츠 개발을 함으로써 ‘가람’의 문화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익산시 문화 행사, 가람 선생 관련 행사를 통한 익산시의 문화 인프라 조성.
- 가람 생가 운영,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익산시의 문화적 랜드마크 조성.
- 일회적 행사 및 익산의 다양한 문화 사업들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 가능성.
- 가람문학회, 가람기념사업회, 지역문인협회, 지역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연계를 통한 문화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문학적 인프라 조성 및 체험과 상상력이 연계되는 창조적 생산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이상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가람문학관 설립과 운영에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문학관 발전 방향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실천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진숙,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문학관 활성화정책 연구』,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12.
-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타:박경리문학관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36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 박영우, 「가람 이병기 문화공간의 활성화 방안」, 『한국문예창작』23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1.
- 박영우, 「현대시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한국문예창작』27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3.
- 신경수, 「김삿갓 문학/ 문화의 세계화에 대하여」, 『시선 난고 김삿갓 문학학술 심포지엄』자료집, 김삿갓유적보존회, 2011.
- 안승범·최혜실 「공간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테마파크 기획 연구」, 『인문콘텐츠』17호, 2010.
- 이경애, 『가람 이병기 문학 연구-해석학적 현상학의 관점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2.
- 윤재웅, 「에코뮤지엄으로서의 미당시문학관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찰」, 『한국문학연구』36호, 2009.
- 임성택,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도시 브랜드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8호, 2008.
- 정정훈, 「지역문학관 활성화 방안:문학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24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 이병기,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 미우라아야코문학관, 「미우라아야코문학관관보」 제30호, 2013.
- Relph, Edward,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 김유정문학촌 홈페이지 <http://www.kimyoujeong.org/>
- 익산시청 홈페이지 <http://iksan.gojb.net>, 2013.
- 황순원문학촌 홈페이지 <http://www.소나기마을.kr/>

## 【국문초록】

가람 이병기(1891~1968)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올해도 전라북도 익산시에 서는 지난 9월 6~7일에 걸쳐 원광대학교와 가람 생가 '수우재'에서 '2013 가람문학제'를 개최하여, 한국학을 이끈 문인, 문학사가, 국어학자, 서지학자, 문화운동가로서의 가람 정신의 다양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익산시의 숙원 사업 중의 하나인 가람문학관의 건립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와 성과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문학관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서는 단순한 문학관의 건립에 머물지 말고, '가람 이병기'라는 문화적 유산을 익산시의 도시브랜드와 연계할 수 있는 보다 세부적인 계획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을 국내외의 성공적인 문학관 운영 사례를 통해 도시브랜드와 연계된 가람문학관의 활용 방안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영국의 스트라트포트 어펜 에이븐(Stratford-upon-Avon)이나 일본의 아사히카와(旭川)시의 경우처럼 역사와 문화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익산시도 가람문학관 건립을 계기로 '가람 이병기'를 도시브랜드와 연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기획과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건물 등 외관 투자보다는 콘텐츠 기획이나 개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전문 연구원을 통한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기업, 관광산업과 연계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미우라이야코문학관은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작가 후원회, 동호인, 기업, 대학, 종교단체의 후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시 관광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을 상설화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과 연계된 관광 패키지 상품이나 지역 특산품 과 연계시킨 기념품 등의 개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브랜드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가람 이병기'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일이다. 가람 문학관이 도시브랜드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백제문화권의 문화제, 보석박물관회와 관련한 보석 관광, 전통 체험 관광 등과 연계하는 인프라 활용이 필요하다.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 자원들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해당 자원들에 대한 인큐베이팅이 가능할 때, 가람문학관은 단순히 문학관이 아닌 익산시 관광산업의 핵심 역량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가람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익산시의 도시브랜드 확립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가람문학관, 도시브랜드, 이병기, 익산시 랜드마크, 시조

【Abstracts】

## Plan for Utilizing Garam Literature Museum as City Brand

Park, youngwoo

Iksan, Jeonbuk held ‘2013 Garam Literary Festival’ at Wonkwang University and Garam’s birthplace, ‘Su-U-Jae’ on September 6 to 7 in order to commemorate Garam Lee Byeong-Gi’s(1891~1968) achievements. This Festival attracted much more attention and meanings than any other time since it was the first time after the confirmation of constructing Garam Literature Museum. It was a good opportunity that all the concerned officials, agency, construction personnel, survivor representative, writers and citizens could join the festival.

The fact that one of the long-cherished projects, the construction of Garam Literature Museum had started could have a significant meaning. For the successful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Literature Museum, following plans and practices should be backed up.

- Building Iksan cultural infrastructure through holding Iksan cultural events and Garam-related events.
- Creating Iksan cultural landmark through operating Garam birthplace and developing humanity programs.
- Using Literature Museum as core bases for one-off events and Iksan’s

various cultural events.

- Operating educational programs through linking Garam literature society, Garam commemorating conference and regional writers' association.
- Utilizing Literature Museum as a creative production space by building humanity infrastructure and linking experience and imagination.

In executing plans mentioned above, Iksan should do its best in order to realize City Brand through developing tourism contents related with culture. Garam Literature Museum business should not be confined to simply-building a literature museum. Instead, Iksan should make a plan in order to make sure that Garam Literature Museum plays its great role as Iksan's symbolic landmark.

Key words : Garam Literature Museum, City Brand, Lee Byeong-Gi, Iksan's landmark, Sijo

이 논문은 2013년 12월 23일에 투고되었으며, 2014년 1월 2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4년 2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